

“이차전지 거점도시·수소산업 선도도시 조성 박차”



정인화 광양시장 민선 8기 1주년 기자 간담회

동호안 규제개혁으로 95만평 경제영토 확장 신산업 발전 전기 마련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포스코와 지역상생 방안 마련 역량 집중

“국가의 미래 신성장 산업인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는 많은 저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지방이 곧 세계화라는 전략 속에 광양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실천하고 미래 먹거리 신산업인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산업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풀어냈다.
이어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각오로 신산업 미래형 경제·산업도시, 문화관광 거점도시, 시민의 삶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지난 1년 주요 성과로 ▲이차전지 소

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투자유치 27개사 4조 625억원) ▲수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2022년 8월 수소도시 선정) ▲역대 국도비 최대 확보(5573억원)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동호안 규제 개혁 해소로 신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포스코그룹 4조 4000억원 투자) ▲전국 최고 수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2024년 개원)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오는 10월부터 5600여명 수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호남권 1위(사회안전지수 평가 A등급) 등을 꼽았다.
특히 동호안 규제개혁은 잠자고 있었던 공유수면 95만평에 제2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미래 신성장 동력이 생명을 불어넣고 있으며, 과감한 규제 해소로 광양시 신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민선 8기 2년 차 주요 핵심사업으로 이차전지 산업 허브로 본격 육성하고 수소기업 집적화로 수소 경제를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과감한 투자규제 해소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로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대용량 청록수소 공급 플라스 마트론 기술개발 실증과 이차전지 부산물 망초 활용 블루수소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은 관광 인프라가 주변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광양읍권, 중마권, 섬진강권 3개 권역별로 관광 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남해 안권 관광문화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동상과 관련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이순신과 광양의 역사성, 단순한 철동상이 아닌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 있도록 랜드마크 내 다양한 콘텐츠 구축,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한다는 점을 설명해,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두가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광양세무서 설치 등 시민의 삶과 연계한 편의 시설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 포스코와의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 “광양제철소가 시설 규모나 조강생산량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대규모 지역 협력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포스코퓨처엠 분사 광양 이전과 산하 연 구소 광양 설립, 광양제철소 계약담당부서 신설, 미래 신산업 투자 확대 등 9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 시장은 올해 호남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데 대한 자부심도 내비쳤다.
그는 “2023년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역 선정을 위한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양시가 전라권·광주권에서 유일하게 1위를 차지했다”며 “광양은 전국에서 29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살고 싶은 도시 반열에 우뚝섰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후 위기, 산업경제 대 전환, 도시 간의 경쟁 등 급변하는 흐름 속에 지역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구체적 전략과 실행력을 갖춰 나가 광양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용역 착수...2025년 출범 목표

전남지역 10번째 문화재단

출연금 20억원...내년 장소 확정

여수시가 오는 2025년 문화예술재단을 출범하며 전남지역 10번째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20억원가량 출연금을 들여 오는 2025년 3월께 여수문화예술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여수지역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단체가 91곳에 달하지만, 그동안 구심점 역할을 할 기구가 없어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수시는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에 즉각적이고 지속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여수문화예술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설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여수문화예술재단은 지역 주요 축제를 추진하거나 지역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육성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국가 공모 사업을 전담하고, 지역 예술인 지원, 생활문화 진흥 등을 담당한다.
여수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면 전남에서는 10번째 지역 문화재단(문화관광재단)이 생기게 된다.
전남지역에는 전남문화재단과 목포문화재단, 순천문화재단, 담양군문화재단,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영암문화관광재단,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등이 있다.
여수문화예술재단 정원은 최소 20명이 될 예정이다.
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재단 이사장은 여수시장이 역임하게 된다. 여수시는 내년 지역 예술단체들과 논의 등을 거쳐 재단이 들어설 장



여수시가 지난 3일 지역 문화예술 전담기구인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재단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여수시 제공>

소(임차)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여수시의원, 시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연구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재단 설립·운영 계획(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재단 역할과 기능, 발전단계별 사업 조직 운영

방안 등 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도 확정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재단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 방식과 ‘여수형 문화재단’의 방향, 재단의 업무 범위와 과업 추진 방향, 재단 명칭 등을 논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여수 문화예술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수에 맞는, 여수만의 색깔을 지닌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농협 2500억원 달성탑 수상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실적 평가

순천농협이 올해 1분기 경제사업 실적 2500억원을 달성하며 농협중앙회로부터 달성탑을 받았다.
순천농협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정례대회에서 ‘2023년 1분기 2500억원 경제사업 달성탑’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970여개 지역농협·품목농협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경제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경제사업 달성탑은 사업실적 2000억원 기준으로, 500억원 단위 추가 달성한 농·축협을 선정해 주고 있다.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과 장용식 순천농협 경

제사업부장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이성의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달성탑을 받았다.
순천농협은 영농자재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 공선출하회,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했다.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은 “조합원과 농가의 소득 지지를 위해 추진했던 영농자재 구매사업, 농산물 판매 및 가공사업, 마트사업 등의 부분에서 2500억원 경제사업 달성탑을 수상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조합원 편의농협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이상철(가운데) 곡성군수와 ㈜안국산업, 음식점 생선나라&단비 관계자가 지난 4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개비정식’을 판매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기차마을 휴게소서 ‘개비정식’ 맛 보세요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 출시

곡성군이 기차마을 휴게소(상행선)에서 흑돼지, 토란, 멜론 등 지역 특산물로 만든 ‘개비정식’을 선보인다.
곡성군은 지난 4일 기차마을 휴게소(고속도로 논산 방향)를 운영하는 ㈜안국산업, 곡성지역 음식점 ‘생선나라&단비’와 곡성 ‘개비정식’ 브랜드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차마을 휴게소에서는 5일부터 곡성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개비정식’을 판매한다.
‘곡성 5미(味) 개비정식’은 곡성군이 유명 요리

사 강래오씨의 지문을 토대로 지역 음식점들과 함께 개발했다.
‘개비정식’이라는 이름처럼 도깨비 방망이로 똑똑 만들어 낸 것 같이 푸짐한 한 상이 특징이다.
‘개비정식’은 지역 특산물인 흑돼지, 토란, 멜론, 와사비 등을 활용해 만들었다.
지역 음식점인 매란명가, 생선나라&단비에서 각자의 특색을 살려 같은 이름으로 다른 맛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개비정식을 즐기고, 또 곡성을 방문해 다른 ‘곡성 5미’의 풍부한 먹거리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프랑스 란팅 야생자연 사진전’ 개최

9월30일까지 가든쇼 학교정원

국내 최초...남극 등 24점 전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프랑스 란팅 야생자연 사진전’이 오는 9월 30일까지 열린다.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사진전은 내셔널지오그래픽 대표작가이자 BBC 선정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야생사진작가’ 프랑스 란팅의 야생자연 사진 24점을 ‘야생 정원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박람회장 순천만가든쇼 학교정원에서 전시한다. <사진>
국내 최초 프랑스 란팅 단독 사진전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프랑스 란팅의 생동감 넘치는 야생 사진과 십 년 넘게 열정으로 가꾼 순천만국가정원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의 위대함을 웅장하게 보여줄 전망이다.
남극과 북극, 아프리카, 아마존, 보르네오와 오세아니아, 남미 오지 등에서 경이로운 생명의 다양성을 담아낸 사진전은 어느 사진전에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출판작품의 성격에 따라 크게 4주제로 분류해 구성된다.
▲섹션 1. 지구의 양끝, 남극과 북극 [Poles



오는 9월까지 순천만가든쇼 학교정원에서 열리는 ‘프랑스 란팅 사진전’에서 선보이고 있는 ‘황제펭귄 가족, 남극’. <순천시 제공>

Apart] ▲섹션 2. 아프리카의 거대 동물들 [Africa’s Megafauna], ▲섹션 3. 영장류의 스위트홈 [Primates and their habitats] ▲섹션 4. ‘혼자가 아닌 우리: 공생[Symbiosis]으로 야생자연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프랑스 란팅 야생자연 사진전을 박람회장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세계 곳곳의 야생자연을 보며 나만의 세계일주를 즐길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구례군이 국토부가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 전용 규제 특구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중증명고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특별비행 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구례읍과 문척면 등 섬진

강 일원, 지리산 토지면 일대 등 3구역이다.
군은 민간기업과 협업해 섬진강 내수면 안전 관리 및 지리산 산불 및 조난 등 예방을 위한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드론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 LRS(Land, River, Sky) 실증사업을 통한 섬진강 및 지리산 안전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